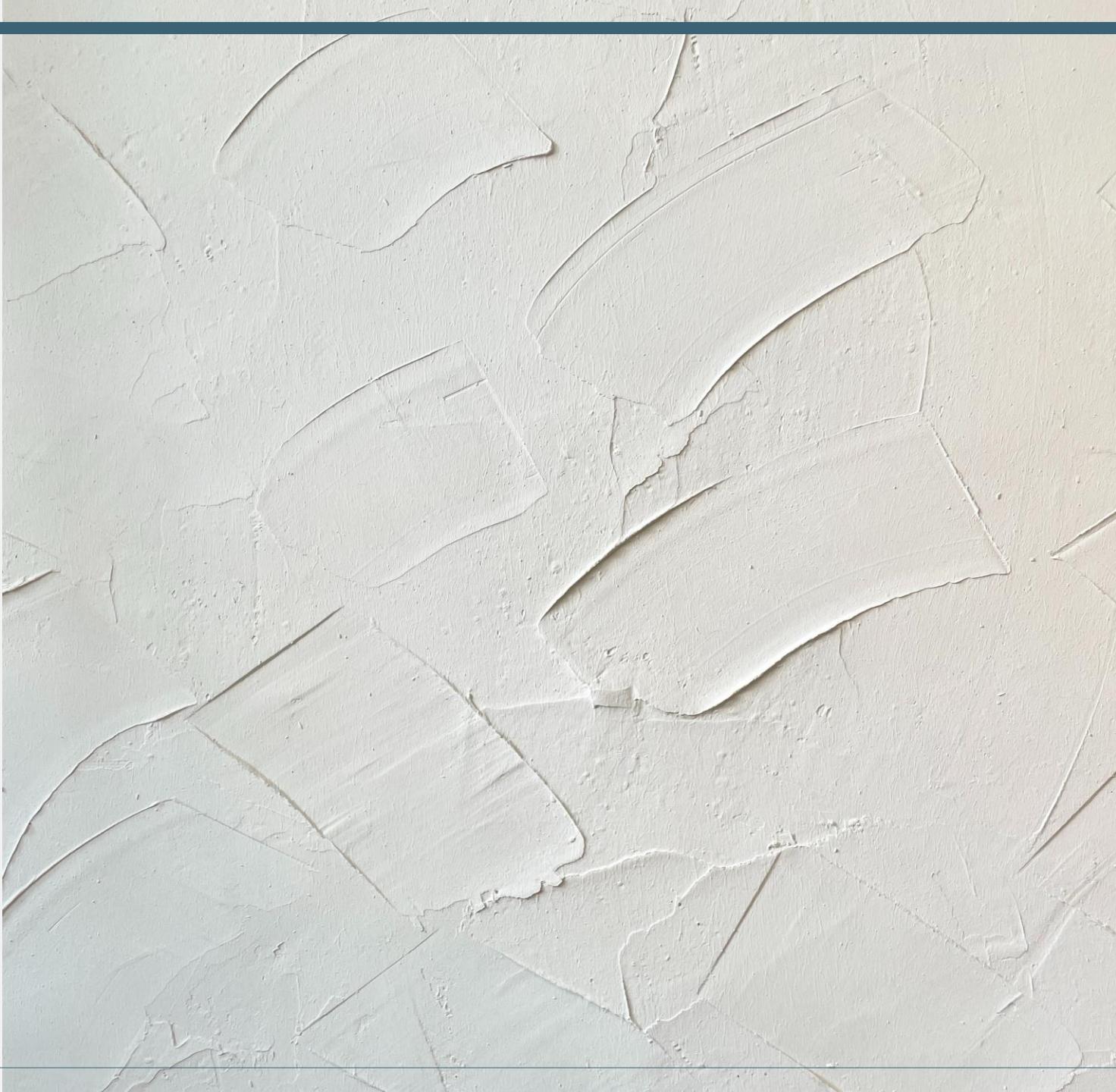


The Shame Machine.

Cathy O'Neil



수치심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을까?

- 규범 유지를 위한 도구인가, 아니면 억압의 수단인가?

수치심은 왜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?

- 빈곤, 중독, 하키코모리 등 약자가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
 - 대중들이 이들을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

의료 시스템에서 환자는 왜 수치심을 느끼는가?

- 체중, 정신건강, 중독 등에서 나타나는 수치심

비만 혐오는 공중보건 문제인가, 차별의 한 형태인가?

- 이상적인 몸매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

빈곤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

- 고위층의 연대와 빈곤층의 연대의 차이
 - 국가 복지의 까다로운 절차

‘책임은 개인에게 있다’는 담론은 정당한가?

약물 중독자들이 의지 부족으로 비난받지만,
이는 구조적인 문제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.

석방된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, 갑생할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한가?

- 재범의 가능성의 여지 vs 사람으로서 동등한 기회 제공

외모가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?

- 인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생성, 외모지상주의

온라인에서 자신의 견해는 존중 혹은 비판, 무엇이 적절한가?

- 지위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
- J.K 롤링의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입장

수치심을 통한 변화는 가능한가? 그 변화는 옳다고 볼 수 있는가

- 권력자들에게 수치심을 유도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것인가
 -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운동, 와인스타인 성착취, 미투운동

기업과 미디어는 어떻게 대중의 망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가

- 다이어트 사업, 플랫폼 활성화 등

책임을 묻는 것과 굴욕을 주는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?

-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경계

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?

-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회,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대상, 수치심을 느끼는 본인

수치심 없는 사회는 가능한가? 가능하다면 어떤 모습일까?

- 수치심이 줄어들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

“우리가 일상에서 저지르는 존엄성 침해를 자각하려고
애쓰는 것이 수치심 머신을 해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”

<세임 머신> 中